

실버산업의 전망과 의사의 참여

Future Prospect of the Silver Industry in Korea and Physicians' Participation



맹 광 호 |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 명예교수 | Kwang-ho Meng, MD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E-mail : khmeng@catholic.ac.kr

J Korean Med Assoc 2008; 51(11): 956 - 958

Abstract

Silver industry or senior friendly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helps the aged people maintain their healthy life and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It includes various specialized industries such as health care facilities and service industry, senior friendly housing industry, medical and rehabilitation equipments industry, senior friendly leisure industry, health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nd so on. The silver industry is growing and becoming popular in countries where proportion of aged population and their buying power are increasing, and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buying power of the aged is also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silver industry in Korea is expected to grow rapidly in the near future. In fact, one report foresees that the annual growth rate of silver industry for 10 years from 2010 in Korea is expected to be 12.9% whereas that of overall industry is only 4.7%. It is quite natural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physicians is desperately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silver industry because of the nature of health problems of the aged population, and for effective applications and supplies of the silver industry to the aged. For this, specialized curriculum on geriatric health probl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ilver industry should be provided to the medical students in the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to the physicians in the postgraduate an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programs. Special short-term educational program for the retired physicians to work at the health care facilities with or without being paid are also desirable.

Keywords: Silver industry; Senior friendly industry; Aging population; Physicians' participation

핵심 용어: 실버 산업; 고령 친화산업; 노령 인구; 의사 참여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란, 원래 일본의 노인상품 제조, 판매업자가 만들어 사용한 일반 용어로 우리나라

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고령친화산업(senior friendly industry)'이다. 200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고령친

화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실버산업, 즉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수요(需要)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마련인 산업의 특성상 실버산업의 등장과 성장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이로 인한 노인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에서 이 말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 사용된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층 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음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후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2008년 현재 10%를 넘었고 오는 2018년이 되면 이 비율이 14%에 도달해서 드디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통계학에서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느린 정도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 이 기간이 보통 40년에서 100년 정도까지 소요되었고 그동안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는 경우 이 기간은 단 1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은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소위 실버산업이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2010년부터 10년간 이 실버산업, 즉 고령친화산업 성장률이 연평균 12.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실버산업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중 기존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4.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속도인 것이다.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의 하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에 정의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산업은 요양산업, 주거산업, 기기산업, 금융산업,

여가산업, 정보산업, 한방산업, 농업산업, 교통산업, 식품산업, 의약품산업, 장묘산업, 의류산업, 교육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향후 핵심 고령친화산업은 역시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산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 케어 시스템 및 스포츠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고령친화용품·기기산업 그리고 집안에서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시키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친화 정보산업 등을 들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민들의 한방(韓方)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을 겨냥한 한방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물론, 이런 실버산업의 성장은 단지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산업의 성장에는 역시 소비자의 구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구매력을 갖춘 인구층이 늘어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소위 베이비붐 세대인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직장 은퇴가 2008년을 전후로 늘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질 높은 내용의 실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어떻게 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산업발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다. 특히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에도 실버산업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해야 하는 점은 무엇보다 실버산업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의 일반 산업과 달리 실버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어서 2005년에는 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한 다음, 최근에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을 설치, 운영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7년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했으며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출범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장기요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제품·우수사업자 지정사업,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구 및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급격한 노인층 인구 증가는 우리 의료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인층 만성 질환이 갖고 있는 보건학학적 질병관리의 특수성과 어떤 형태의 실버산업이든 노인들의 건강문제와 관련 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공회의소 연구보고서가 앞으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 고

령친화 요양산업이나 기기산업 그리고 건강 관련 정보산업 등에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직접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계는 관련학회나 의과대학장협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규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졸업 후 평생교육과정에 의사들의 실버산업 참여를 위한 내용의 별도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의사생활을 마치고 퇴임했거나 개업의 생활을 중단한 노인층 의사들로 하여금 이들이 원하는 경우,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이나 요양기관에서 봉사 차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사단체가 별도의 연수 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